

현직 단체장 VS 무소속 연대 재대결?

정기호 현 군수 뚜렷한 대항마 없어 '독주 체제' 장현 '설욕' 다짐에 김연관 정치일선 복귀 꿈 꾀

■ 영광군수 입지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살의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광군은 선거분위기가 달아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6·4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민주당 정기호 군수가 18일 현재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7대 도의원을 지낸 정 군수는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이전에는 정치적인 아픔을 겪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이던 강종만 후보에게 1천200여표 차로 패배했다.

하지만, 강 전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고 전격 구속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정 군수는 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다른 경쟁자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기초단체장의 자리에 올랐다.

정 군수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다른 8명(선거일 직전 후보 2명은 사퇴)의 무소속 후보와 싸워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무소속 연대'라는 협준한 고비를 넘

■ 영광군수 입지자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전 영광군의회 의장	전 민주당 영광지역위원장	호남대 교수	전남대 명예교수	영광군수	변호사

(가나다 순)

어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다.

정 군수의 민주당 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군의 약진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내부적으로 정 군수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미약하나마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군수의 장점은 취임 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그는 "휴일도 반납한 채 각종 사업 현장을 찾다니는 등 열심히 된 결과, '영광 방문의 해'와 '대마 산업단지 착공' '기업 투자유치' '굴비·보리 산업 특구 지정'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했다.

정 군수는 또 "지난해 '영광 방문의 해' 추진으로 55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영광을 찾았으며 지난 2년 동안 97개 기업과 17조원에 이르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회사가 10만평 규모의 계약을 맺는 등 투자유치 실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 경선 참여를 본격 선언한 김연관 전 민주당 영광지역위원장의 야심이 거세다. 김 전 위원장은 33세에 영광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패기 있는 정치인. 김 전 위원장은 동교동계의 후광을 업고 정치 일선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그는 "영광 발전을 위해서는 폭 넓은 중앙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원전 추가 유치 등 대단위 사업 유치를 통해 잘 사는 영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장현 호남대 교수. 현재 무소속인 장 교수는 가만히 있어도 10% 이상의 지지율은 장담할 정도로 기본적인 지지기반은 갖췄다.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정 군수에 무소속 후보로 맞서 패배한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영광 정치권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확실히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여러 생각이 있지만 현실적 여건도 있고 영광에서의 바람도 있어 고민이 많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현 변호사도 출마가 유망시 되는 후보다. 15년

여를 법조계에서 활동해온 정 변호사는 정치계 입문에 대한 꿈을 간직한 채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왔다.

그는 "민주당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회가 미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마음만으로는 민주당이지만 무소속으로라도 군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영광에는 기독교와 소외계층과의 갈등이 많지만 기독교가 양보하고 소외계층을 어루만져주면 군민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영광에서는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 의장과 전태갑 전남대 명예교수 등이 무소속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지난 2008년 6월 보궐선거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정 군수에 막바지 자리를 내준 김준성 전 영광군의회 부의장과 언론인 출신으로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최종철씨도 타원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쟁점 & 변수

영광군의 6·2 지방선거 분위기는 아직도 접화되지 않고 있다.

군수 후보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전남도의원 후보 간 공천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무소속 연대 가능하나=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반민주당 세력이 50%를 넘나드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무소속 후보인 강종만 전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이긴 것도 민주당에 반기를 든 무소속이 연대했기 때문이고 지난 2008년 6월 보궐선거에서 정기호 현 군수가 승리한 것은 무소속이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영광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연대만 성사되면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정 군수와 박병의 접전을 펼칠 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아직은 정 군수에 맞설 무소속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무소속으로 두 명의 후보만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소속 연대는 이미 '물 건너 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영광 정가의 관측이다. 정 군수의 독주 계속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군의 연합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회의원과 정기호 군수의 입김은=현재 군수 선거는 경쟁 가능성이 존재

① 군수선거 '무소속 연대' 이뤄질까

② 도의원선거, 이낙연-정기호 입김은

③ 민노당 후보 바람 부나

할 뿐 경쟁 상황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대신 전남도의원 선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과 정 군수의 선택은 전체 도의원 후보 경선구도를 결정짓는 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 후보 출마자들은 모두 이 의원·정 군수와 관계를 들먹이고 있다. 1선거구에 출마한 이동권 전남도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이낙연 의원의 선거를 도우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한 번도 결눈질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같은 선거구의 민주당 신인창 군의회의장은 친형인 신모씨가 이 의원과 절친한 고교 선후배 간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선거구의 경우, 박찬수 도의원은 2000년 이 의원 첫 선거를 도운 것은 물론 정 군수의 외가와 친척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장석 군의원은 친형이 정 군수와 절친한 친구여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민노당 후보의 바람. 영광은 전통적으로 농민운동이 거세던 지역. 하지만, 최근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 인사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12.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노당이 민주당 공천자의 당선에 가장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민회 운동을 꾸준히 해온 1선거구 신춘하 전 의원과 2선거구의 주경채 영광농민회장이 다코호스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민노당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무소속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도의원 입지자

영광군 지방선거는 전남도의원 선거가 하이라이트다.

군수 선거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

제1선거구(영광읍·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에는 이동권 전남도의원에게 신인창 영광군의회 의장이 민주당 공천에 도전한 상황이다. 이에 신춘하 전 영광군의회 민노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1998·2002년의 실패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조선대 학내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살려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용하면서도 바닥을 다지는 선거운동으로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신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폭넓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내실 있는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사 및 차관 출신인 형제들의 인맥을 통해 영광읍내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에 지역 정가의 변화를 주장하며 신 전 의원이 지역 기반 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영기 전 전남도의원과의 지난 2006년 보궐선거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균 전 전남JC 회장의 출마를 이야

현직 도의원 VS 군의원 한판승부

후보마다 조직력 등 '자신만만'

■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신인창(만·55)	영광군의회 의장
	신춘하(만·59)	전 영광군의원
	이동권(만·49)	전남도의원
2	박찬수(만·51)	전남도의원
	이장석(만·60)	영광군의원

기하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선거구(백수·홍농·염산·법성·낙월)에도 박찬수 전남도의원과의 이장석 영광 군의원이 맞붙었다.

지난 2006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영철씨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행운의 공천권을 따낸 박 의원은 본선에서 열린 우리당 장안종수와 무소속 김양모, 주경채 등이 경쟁하는 선거에서 300여표 차로 당선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하반기 연속 간사와 도의원으로서는 이례적

으로 전남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3개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현재 접촉 중인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완성하겠다"며 "특히 영광에 세계중고문화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영광군을 종교문화 중심지로 각인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공천 도전장을 던진 이 의원은 홍농읍에서 군의원(3선)을 지내며 지난 군의회 상반기에는 의장을 지낸 인물. 활발한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박 의원에게 300여표 차로 아깝게 패한 주경채 영광농민회장이 민노당이나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결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의원 출마도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아직 없으신가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트라이슈머 시트방수로 완벽한 단열요구까지!

10621511-0444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님네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초슬림!!

가격 50만원~

귀여운 유행머리 인기를 높여주는 영리한 유행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62-873-9358, 873-8822

화장 이 수 제 011-600-9255